

자극의 크기와 준거효과

이 수 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자극의 크기가 준거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인물평가 형용사의 조합의 크기를 1개에서 4개까지 변화시켜 일정한 준거 밑에서 평정케 하였다. 그 결과 자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준거효과는 일관성 있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다시 자극과 상황 사이의 적절성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상형성에서 정보통합과정에 관한 몇가지 시사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자극에 대한 판단이 주어진 준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인지되어,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판단의 기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들은 크게 두가지 접근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즉, 사회적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접근과 선택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접근이다.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그 자극이 어떤 비교기준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기준이 변하면 반응도 변한다. 그러나 한 순간에 주어진 모든 것을 그 밖의 모든 것과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인간의 경험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선택적이다.

사회적 판단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그 동안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화-대비이론(Hovland 와 Sherif, 1952), 순응수준이론(Helson, 1964) 및 변인계열이론(Upshaw, 1962) 등과 같은 것이 등장하였다. 이들 이론은 모두 판단자극이 판단과제에 적절한 것이며, 또한 단일한 자극속성으로만 이루어져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적 판단에서 자극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선택되며 그 기준이 되는 자극 혹은 준거의 특징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은 이들 이론으로서는 풀이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판단이 선택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접근은 위의 이론들과는 달리 자극 및 준거의 속

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판단원리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이 방면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판단의 선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극의 속성을 추구한 두 가지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Murdock(1960)은 자극의 명료성은—어떤 자극 계열 내에서 주어진 자극이 다른 자극들로부터 변별되는 정도—주어진 자극이 다른 자극 및 준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범위가 되어 준다는 연구를 하여 준거의 선택성에 대한 시사를 던지고 있다. 또한 Bevan 등(1968)은 자극의 적절성은—어떤 자극이 주어진 준거와 같은 차원에 소속되는 정도—그 자극을 판단할 때 준거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극의 적절성이 주어진 준거를 선택하는 변인이 됨을 밝혔다.

이들 연구로부터 우리는 자극의 어떤 속성이 주어진 준거를 판단의 기준으로서 선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자극의 판단이 그 자극과 함께 주어진 모든 준거에 의하여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자명한 것이다. 자극에 따라 주어진 준거의 영향은 극대화될 수도 극소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준거효과의 선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변인을 또 다른 하나의 각도에서 찾으려고 시도되었다. 연구에서 택한 변인은 자극의 정보량이다. 자극의 정보량은 조작적으로 어떤 자극의 정보의 갯수를 변화시키므로서 얻어진다. 즉, 자극의 다른 속성은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보의 갯수만을 변화시키므로서 자극의 정보량은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인상형성에서 인물을 기술할 때, 특질형용사의 조합의 크기는 변화시키면서 그 호오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므로서 얻어질 수 있다.

자극의 정보량의 조작이 준거효과를 달리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시사받을 수 있다. 특히 자극의 애매도나 곤란도가 주어진 압력이나 매질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에 책임이 있다는 연구들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정량은, 1969).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극의 정보량의 조작이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자극의 감정가와 정보량 사이의 구분이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판단에서 자극의 감정가는 모든 판단차원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자극의 애매도나 곤란도에서 이 감정가를 고려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장면인 한 매우 중요한 조작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와 반대로 자극의 감정가만을 취하고 정보량은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연구를 촉발하게 된 계기는 인상형성에서 정보통합과정과 관련지어 나오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정보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극의 감정가만을 취하여 이 감정가들의 통합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 특질형용사가 다른 특질형용사에 첨가되거나 제거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체 인상에서 감정가만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또 다른 특질의 변화도 동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질로서 이 연구에서는 준거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차이를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려 하였다. 정보통합에서 특질형용사의 증가는 감정가의 변화도 초래하겠지만, 동시에 전체인상의 분화도 함께 일어날런지 모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화된 인상과 미분화된 인상 사이에서 준거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은 가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자극의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비례하여 준거효과가 감소되어 갈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 인상통합과정에 이를 적용해 보려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자료는 인상형성실험에서 쓰이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자극의 정보량의 조작은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즉 인물평가형용사의 조합의 크기를 조작하므로서, 자극과 함께 그 자극의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므로서, 그리고 자극과 상황의 관계의 적절성을 변화시키므로서 이루어 졌다. 또한 준거효과의 조작은 자극계열을 달리 제시 하므로서 나타나는 대비효과를 가지고 조작하였다.

방 법

자료. 인물평가형용사 16개를 필자 등(1974)의 "300 인물평가형용사의 호오도"에서 뽑았다. 이 중 8개는 긍정적 형용사(P)이며 나머지 8개는 부정적 형용사(N)였다. 각 형용사는 호오차원으로 된 0-6점 척도상에서 평정된 호오도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긍정적 형용사의 평균 호오도는 4.81이며 부정적 형용사에서는 0.74였다.

이들 형용사는 다시 이 실험에서 설정한 상황(일본인과 미국인)과의 관계에 따라 나뉘어졌다. 이 실험에서 부정적 형용사는 일본인파만 관계되고 긍정적 형용사는 미국인파만 관계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각 인종과의 관계성에 따라 형용사들은 다시 적절 4개, 부적절 4개로 쪼개어졌다. 이 관계성은 실험전에 실험자를 포함한 3명의 평정자에 의하여 각 형용사가 주어진 인종을 얼마나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가에 입각해서 평정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부정·적절형용사(간교하다, 잔인하다, 뻔뻔하다, 비열하다), 부정·부적절 형용사(무능하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흐릿하다), 긍정·적절형용사(근면하다, 쾌활하다, 정확하다, 친절하다), 긍정·부적절 형용사(조용하다, 순진하다, 고독하다, 고상하다)로 나뉘어졌다.

자극의 구성. 한 조에서 자극(특질형용사)의

개수는 1개에서 4개까지 변화시켰다. 이 때 자극의 조합은 형용사의 긍정 및 부정성에 따라, 적절 및 부적절에 따라 따로 분리하여 편성하였다. 즉, 긍정으로된 자극조합에 부정형용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적절로 이루어진 자극조합에 부적절한 형용사는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따라서 편성된 각각의 자극조합은 결국 4개의 자극 사이에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어난 자극의 기본 조합은 P, N, PP, NN, PPP, NNN, PPPP, NNNN로 이루어진다. 4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진 조합의 수는 1조(P,N)에서 4가지, 2조(PP, NN)에서 6가지, 3조(PPP, NNN)에서 4가지, 4조(PPPP, NNNN)에서 1가지가 나온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4조에서 한 가지로 하지 않고 두 가지로 하였다. 이 이유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조합구성에서 서열효과를 상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개의 자극의 조합은 모두 16가지가 나온다. 이와 같이 4개로 이루어진 형용사조합은 이 실험에서 4가지가 있으므로 실제 자극의 숫자는 모두 64개였다. 이들 자극들의 조합 구성은 조합을 만들 때 오는 서열효과를 서로 상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무선적이 되도록 배열하였다.

피험자.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피험자로 이용하였다. 이들은 25명씩 4집단으로 나뉘어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집단구성은 상황을 준 집단과 주지않은 집단,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각 자극제시 순서에 따라 상황집단과 하향집단으로 나뉘었다. 각 집단의 편성은 무선적이 되도록 치치하였다.

절차. 환등기를 통하여 앞에서 말한 자극들을 하나씩 피험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각 자극은 어떤 인물을 기술하는 것으로 잠시 이 인물을 상상해 보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이렇게 기술된 인물을 자신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혹은 싫어하겠느냐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자극은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모든 형용사는 똑같이 중요하며, 따라서 어느 한 형용사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평정은 미리 나눠 준 카드에다 하도록 하였다. 이 평정카드는 “좋아한다—싫어한다” 자원에서 +20으로 부터

-20까지의 척도상에서 숫자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먼저 평정요령과 척도범위를 알리기 위한 9개의 자극을 받고난 후 이어서 64개의 본실험 자극을 하나씩 제시받았다.

이 64개의 자극은 모든 피험자에게 공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험자만에 나타난 것처럼 자극제시 방법과 자극제시 순서는 집단에 따라 달리 하였다. 먼저 자극제시 방법에서 상황을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이 있다. 상황을 준 집단은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이제부터 기술되는 인물은 일본인이다 (혹은 미국인이다).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일본인 (혹은 미국인)을 평정해 보아라”라는 상황을 먼저 주었다. 이 실험에서 부정적 형용사에는 모두 일본인이라는 상황을 주고 긍정적 형용사에는 미국인이라는 상황을 주었다. 상황을 주지 않은 집단은 위와 같은 상황을 진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물을 평정토록 하였다.

자극제시 순서는 이 실험에서 준거효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치치되었다. 여기서 준거효과는 자극제시순서를 달리 하므로서 나타나는 대비효과를 가지고 조작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극제시 순서를 자극의 호오도에 따라 상황제시에서는 먼저 부정적 자극을 계속해서 모두 다 제시한 후 이어서 긍정적 자극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하향제시는 이와 정반대로 제시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시순서에 따르는 차이를 준거효과로 삼았다. 제시순서에서 자극의 적절성과 자극의 크기는 모두 무선적으로 섞었다.

결 과

이 연구에서 치치된 변인은 모두 5가지였다. 자극변인으로 자극의 호오도, 적절성 및 크기의 3가지가 있으며, 피험자변인으로 제시순서와 상황제시유무의 2가지가 있다. 이들 변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2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4$ 추세분석을 하였다. 이때 자극의 크기는 각 조에 따라 자극의 수가 달랐으므로 조별로 평균을 내어 분석을 하였다. 지면관계상 이들 분석에서 나오는 자료 중 이 연구의 가정과 관계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한다.

이 실험에서 행한 기본 조작은 상황제시의와 하향제시의 자극제시 순서에서의 차이로서 대비효과를 초래케하여 이것으로 준거효과를 측정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자극제시 순서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여 본 결과 그 인상평군이 부정적 자극을 먼저 주고 이어서 긍정적 자극을 제시한 상황제시에서는 -0.622 였으며, 이와반대로 제시한 하향제시에서는 -1.439 였다. 이 차의 의의도를 검증한 결과 $F(1/96)=11.299$ 로 1%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나왔다. 이 사실은 자극제시 순서가 대비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평균인상이 모두 부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실험에서 사용한 자극들이 평균적으로 약간 부적방향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 이와 같은 준거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우리의 기본가정과 결부하여 검토해 보자.

그림 1은 자극의 크기에 따라 준거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도시화한 것이다. 여기서 준거의 효과는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제시순서에서의 상황제시의와 하향제시의에서의 인상평정의 차이로서 측정하였다. 그림을 보면 자극의 크기에 따라 일관성있게 상황과 하향제시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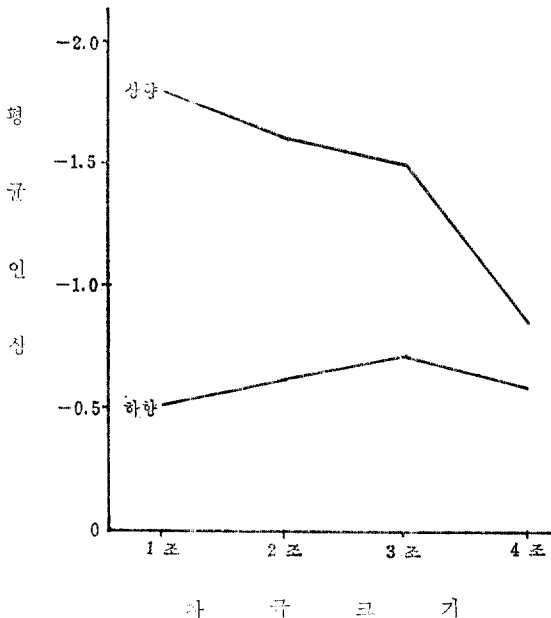


그림 1. 자극크기에 따른 준거효과

인상평정의 차가 줄어든다. 즉, 준거효과는 자극의 크기와 역비례하고 있다. 이 추세의 의의도 검증은 자극제시의와 자극크기의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하여 $F(3/1440)=2.99$ 로 5%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자극크기의 증가와 함께 준거효과가 점차 감소된다는 우리의 기본가정이 검증되었다.

이 추세를 더욱 지지하는 결과로 그림 2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상황의 제시유무와 준거효과 간에 차이가 난다. 즉,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상황을 제시했을 때보다 상황제시의와 하향제시 사이의 평균인상에서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 추세를 분석해 본 결과 $F(1/96)=4.61$ 로 5%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자극의 의미가 구체화함에 따라서 준거효과는 감소되어 감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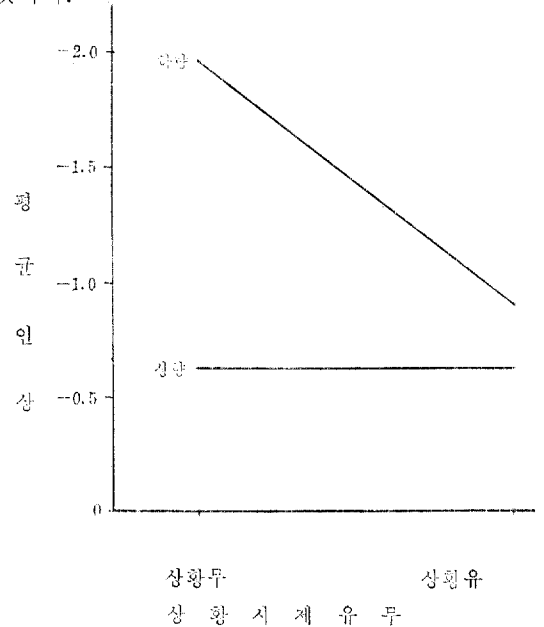


그림 2. 상황제시 유무에 따른 준거효과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자극의 적절성과 준거효과 사이의 관계는 의의있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F(1/1440)=0.19$). 이 이유는 자극의 적절성이 이 실험에서 설정한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것의 직접적인 증거는 자극의 크기와

준거효과 사이의 관계에서, 아마도 자극의 적절성이 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인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3은 이것을 시사하여 준다.

그림 3은 자극의 크기에 따르는 준거효과는 자극의 적절성에 따라서, 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는 크기가 준거효과에 크기 영향을 주나 부적절할 때는 영향을 덜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의의도 검증은 $F(3/1440) = 3.34$ 로 5%에서 의의있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자극의 적절성은 준거효과에 이차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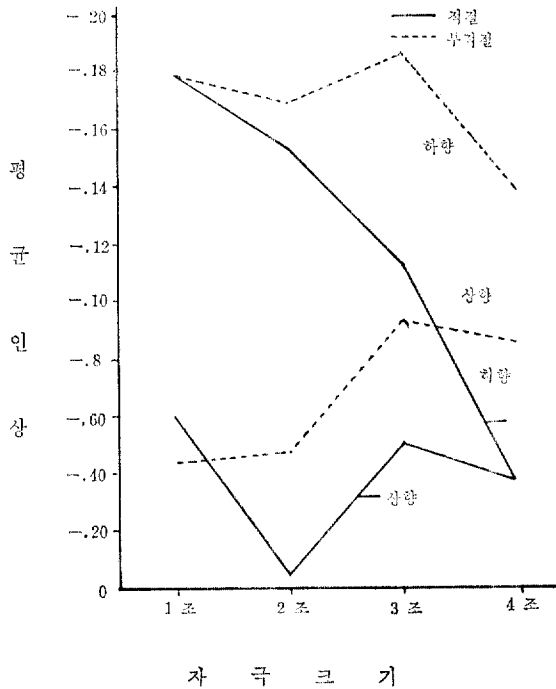


그림 3. 자극의 적절성 및 크기에 따르는 준거효과

또한 이 실험에서 자극의 호오도와 준거효과 사이에는 의의없는 관계가 나오고 있다 [$F(1/1440) = 0.717$]. 준거효과는 긍정적 자극에서나 부정적 자극에서나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극의 호오도와 준거효과 사이의 관계는 자극의 적절성이 개입하므로써 의미있는 관계가 얻어지고 있다. 즉 자극의 적절성, 자극

의 호오도 및 제시순서의 상호작용이 의의있게 나온다 ($F(1/1440) = 4.056, p < .05$). 이 결과는 그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정적 자극은 그 자극이 적절할 때 상황과 하향제시에서의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부정적 자극에서는 자극이 부적절할 때 준거효과가 더욱 크게 나온다. 즉, 자극의 적절성은 자극의 호오도에 따르는 준거효과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하나의 변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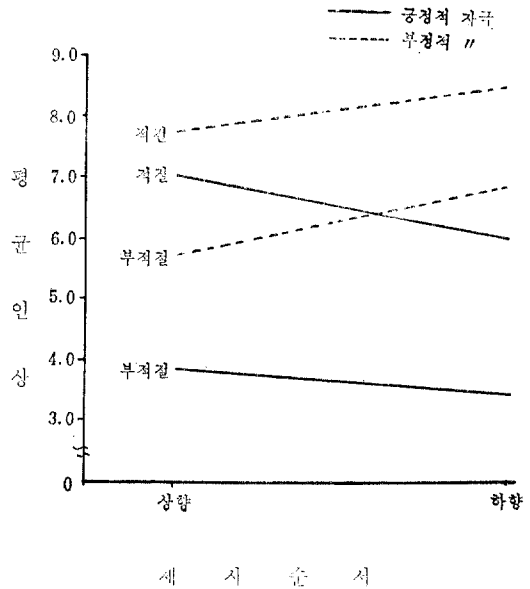


그림 4. 자극의 호오도 및 적절성에 따르는 준거효과*
* 이 그림은 자극의 방향을 무시하고 절대치로서 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래 부정적 자극은 평균인상이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극은 +방향으로 되어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 결과는 자극제시 순서에 따르는 대비효과였다. 대비효과는 정신물리학에서 준거효과를 규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적 판단에서 대비효과로서 준거효과를 조작한 연구는 극히 보기 힘들다. 연구에서 이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사용된 자료가 인물평가 형용사이므로 준거로서 개인의 내적변인을 다루기가 힘들었고, 또한 연구의 성질상 자극과는 별개로 상황을 제시

하였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외적배경을 준거로 설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하튼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판단에서도 자극제열의 조작에 따라 준거효과를 관찰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즉, 호오도가 다른 인물평가 형용사의 제시순서를 달리하므로써 정신물리학에서 얻었던 대비효과를 이 연구에서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기본 의도는 이러한 대비 효과가 주어진 자극의 정보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려는 것이었다. 결과는 우리가 설정한 가정대로 나왔다. 자극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준거효과는 점차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극제시에서 상황을 준 집단은 주지 않은 집단보다 준거효과가 줄어들었다. 여기서 자극의 크기나 상황제시가 준거효과와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준거효과를 자극의 감정가에서만 찾으려는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의를 갖는다. 사회적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순응수준이론이나 자극제열이론은 준거효과를 주어진 판단차원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준거의 거리로서 포착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 보면 이 예외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 결과에서 자극의 호오도는 자극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자극은 긍정방향에서, 부정적 자극은 부정방향에서 더욱 극단으로 치우쳤다. 이 결과는 자극의 크기와 자극의 호오도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주 의의있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F(3/1440)=30.301, p<.001$].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극이 커질수록 그 자극은 주어진 방향에서 극단적이 되어감으로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자극의 거리는 커지고, 따라서 자극제시 순서에 따르는 준거효과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는 상황제시 유무에 따르는 준거효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자극의 호오도가 다르게 나왔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극들은 주어진 방향에서 중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극단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F(1/1440)=11.51, p<.001$]. 따라서 준거효과를

자극과 준거의 거리로서만 파악할 때는 상황을 줄때보다 상황을 주지 않았을 때 준거효과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준거효과가 단순히 주어진 자극의 감정가와 그 자극의 판단기준의 감정가 사이의 거리로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서 볼 때 자극의 정보량은 준거효과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받는다. 이러한 변인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극의 명료성이나 적절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극의 정보량과 준거효과 사이의 관계도 단순한 직선적인 역비례 관계만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 우리의 결과는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또다른 변인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극의 적절성에 따라 자극과 준거가 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보다 자극의 크기에 따르는 준거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극의 크기에 따르는 준거효과가 또한 여러가지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하튼 이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자극의 판단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택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하여 자극의 속성에 따라 주어진 준거의 영향은 극대화 될수도 극소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극의 속성 중의 하나로 우리는 자극의 정보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인상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상형성에서 정보통합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인물을 기술하는 낱개의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정보들이 지닌 감정가가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보려 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통합은 감정가에서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속성에서의 변화도 동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이러한 속성 중의 하나로써 준거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정보가 더해감에 따라서, 즉 자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준거효과는 감소되어 갔다. 그리고 이 경향은 제시된 자극의 감정가와와는 독립된 현상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여기서 왜 자극의 정보량이 준거효과와 관계되는가? 즉, 자극크기의 증가는 감정의 변화 이외에 어떤 속성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떻게 준거효과와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물음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해답도 시도되지 않았다. 자극의 정보량이란 자극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자극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못된다. 단지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어진 자극의 구조는 점차 복잡해지며, 따라서 자극의 의미가 확일적이지 아니라 다의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부터 자극의 크기와 준거효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추측해 볼 수 있을런지 모른다.

Heider(1944)는 인과지각에 관한 한 연구에서 인간은 타인의 행위를 지각할 때 그 행위의 원인을 아울러 지각하며, 이때 그 행위의 원인을 흔히 행위자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지각자는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속성에서 찾게 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행위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속성은 이제 그 행위자를 지각할 때 배어놓을 수 없는 행위자의 속성 내지는 실체로서 등장한다. 그러나 만일 행위와 원인을 행위자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 당시의 주변적인 상황으로 돌리게 된다면 행위자에게 부여한 그러한 실체를 지각할 필요도 혹은 지각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지각자가 행위자를 보는 각도는 달라지게 되며, 이후의 행위자의 행동에 관한 지각도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일정한 준거 밑에서 행위자를 지각하고 판단할 때에 얻는 인상도 달리 나오게 될 것이다.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속성을 부여하지 않고 볼 때, 즉 상황에 책임을 돌리어서 볼 때에는 속성을 부여하고 볼 때보다 주어진 준거에서 벗어나서 행위자의 인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을 기술하는 정보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보다는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만 그 인

물을 보지않게 될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른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주었을 때, 주어진 인물에게는 하나의 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 추리해 볼 수 있을런지 모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에게 부여한 획일적인 속성에 의하여 평가하는 정도는 정보가 다양한 인물일수록 점차 희박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여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준거효과는 점차 빛을 잃어갈 것이다. 이것이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왜 준거효과가 줄어드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이다. 그러나 이 해답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다. 정말 자극의 크기의 증가와 함께 인상의 구조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다가 마지도 아직은 결정적인 해답을 내릴 수 없는 단계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조공호·김정권. 인물평가 형용사의 호오도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1974, 2, 41~47.
 鄭良殷. 과제관단도와 집단압력, 韓國心理學會誌, 1969, 1, 42-53.
 Bevan, W., and Pritchard, F. J. The anchor effect and the problem of relevance in the judgement of shape. *J. gen. Psychol.*, 1963, 69, 147-161.
 Heider, F.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 Rev.*, 1944, 51, 358-374.
 Helson, H. *Adaptation-Leve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1964.
 Hovland, C. I., and Sherif, M. Judgemental phenomena and scales of attitude measurement: Item displacement in Thurstone scales. *J. abnorm. soc. Psychol.*, 1952, 47, 822-832.
 Murdock, B. B. Jr. The distinctiveness of stimuli. *Psychol. Rev.*, 1960, 67, 16-31.
 Upshaw, H. S. Own attitude as an anchor in equal appearing intervals. *J. abnorm. soc. Psychol.*, 1962, 64, 85-96.

STIMULUS SIZE AND CONTEXT EFFECT

LEE SOO WON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set size of stimuli and the context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It was assumed that the context effects tend to be larger when the set size of stimulus list decreases. In an attempt to test this assumption, an experiment was performed, manipulating the set size of the stimulus lists and inducing the context effects. The set size of lists was ranged one to four, while the favorableness of the stimulus lists were consta-

nt. The context effects were induced by the presentation order of the stimulus series. Subjects were presented with the stimulus lists and rated their liking for the adjective traits under different context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s in context effects as the set size of lists increased and the structure of stimulus were differentiated.